

Vol.26 December 2014

# Canada Wood Newsletter

## 특집기사

노후주택 재생 보고서

## 캐나다 목조건축

기술연수 참가 후기

목(木)의 궁지를 품어오다



Canada Wood  
캐나다 우드

서울시 서초구 매현로 54-1, 3층  
T. 02-3445-3835 F. 02-3445-3832

[www.canadawood.or.kr](http://www.canadawood.or.kr)



Canada Wood  
캐나다 우드



〈특집기사 정릉주택 리모델링〉



〈캐나다 목조건축 기술연수 참가 후기  
UBC Forest Science Building〉

# Contents

## 03 특집기사

노후주택 재생 보고서

## 11 캐나다 목조건축 기술연수 참가 후기

목(木)의 긍지를 품어오다

## 13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8월 ~ 11월 활동사항

## 15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12월 ~ 3월 활동계획

### [전시회 일정]

2014.12.4(목) ~ 12.7(일) / COEX

제4회 목재산업박람회

2015.1.22(목) ~ 1.25(일) / SETEC

제37회 MBC 건축박람회

2015.1.22(목) ~ 1.25(일) / COEX

11회 하우징브랜드페어

2015.2.26(목) ~ 3.2(월) / KINTEX

29회 경향하우징페어

2015.3.5(목) ~ 3.8(일) / COEX

제22회 서울국제건축박람회

2015.3.19(목) ~ 3.22(일) / EXCO

제15회 대구건축박람회

[표지사진 : Vandusen Visitor Center, BC, Canada]





## 특집 기사

# 70년 세월의 고택 햇살과 나무향 가득한 집으로 다시 태어나다

### [도심 노후주택 재생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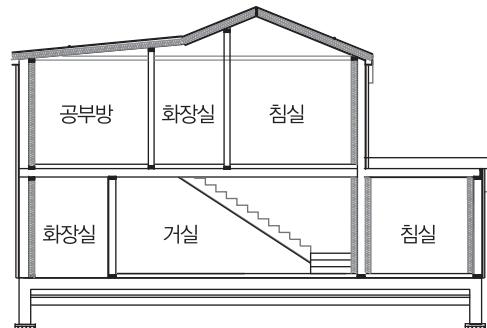
#### 서울 성북구 정릉주택 리모델링 A to Z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조성된 지 70년이 경과한 주택단지가 있다.

두부도 자르듯 구획한 대지에는 쌍둥이 같은 낡은 2층집이 즐비하다.

이 동네에 들어가 살기로 결심한 젊은 가족이 리모델링에 나섰다.

금방이라도 허물어질듯 위태하던 70살 고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 PLAN

대지위치 서울 성북구 정릉동 685-64

대지면적 99.00m<sup>2</sup>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현황 6M, 4M 도로에 접함

건물규모 지상1층

건물구조 조적조, 목구조

용도 일반주택

건축면적 71.16m<sup>2</sup>

연면적 97.62m<sup>2</sup>

건폐율 71.98% (법정 60% 이하)

용적률 98.60% (법정 200%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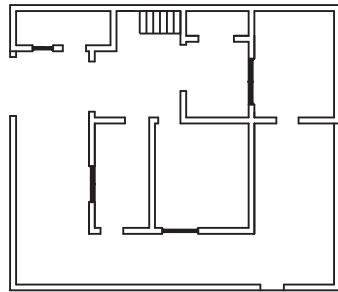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685-64. 차 한 대 겨우 지나갈만한 좁은 골목길을 돌아 돌아 들어가 만난 모퉁이 이층집은 노란 스타코로 한껏 치장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시선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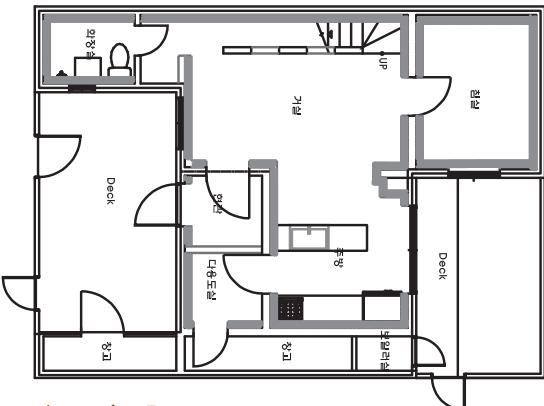
불과 두 달여 전만해도 언제 무너질지 모를 만큼 허름한 상태였던 집이다. 아직도 이층집 주변에는 쌍둥이처럼 비슷한 모양을 한 넓은 집들이 수두룩하다. 사람만 드나들 수 있는 미로 같은 골목길이 존재하는 이곳은 70년 전 시가 토지를 분할하고 똑같은 집을 지어서 분양할 때 들어선 주택단지다. 군데군데 개발한 흔적이 엿보이지만 여전히 많은 집들이 70년 전 모습 그대로 서 있다.

집주인 강은희(40) 씨는 결혼 후 10년간 지속해온 아파트 생활을 접고 두 아이와 함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으로 70살 먹은 이 고택을 선택했다. 그리고 2달여 만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입주해 새로운 일상을 꾸려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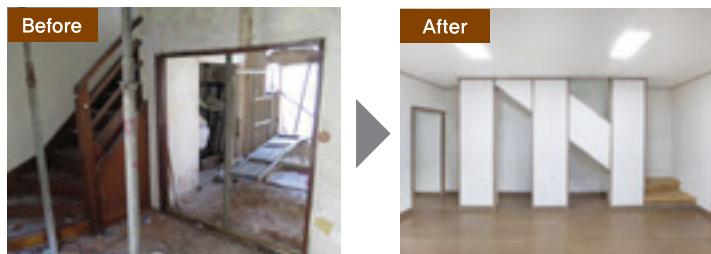
그녀의 가족들은 실내 구석구석 들어서는 햇살과 그윽한 나무 향에 매료되어 있다. 실내의 벽과 지붕에 서양식 경락목구조 공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목조주택에 들어와 사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느끼는 것이다. 강 씨가 신축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 두 달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 태어난 집의 안팎과 공사과정은 물론, 리모델링 공사비 내역까지 세세히 공개한다.



〈Before〉 1층 실측도면



〈After〉 1층 리모델링 도면



#### ▶ 거실

기존 벽체를 제거하고 거실을 넓게 계획했다.  
계단실 아래 부분에 공간을 비워 여유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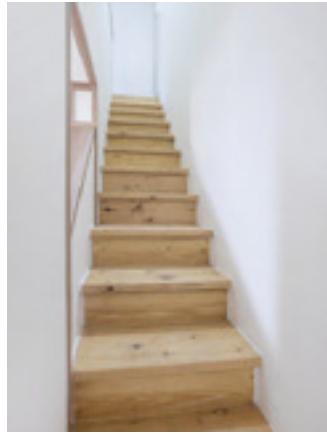
#### ▶ 주방

뒷마당과 소통되는 구조로 리모델링한 주방.  
햇살과 바람이 주방을 거쳐 거실까지 들이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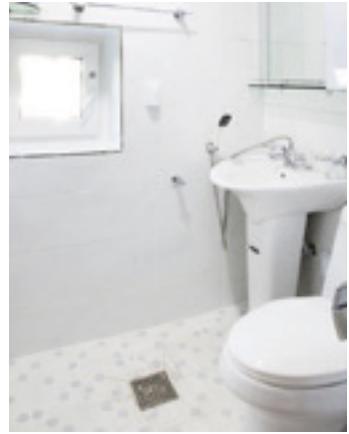
#### ▶ 침실

툇마당으로 창을 낸 안방.  
햇살과 마당의 풍경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다.



#### ▶ 계단실

좁은 계단이 답답하지 않도록  
오픈형으로 설계했다.



#### ▶ 화장실

화장실 위치를 변경하고  
쾌적하게 조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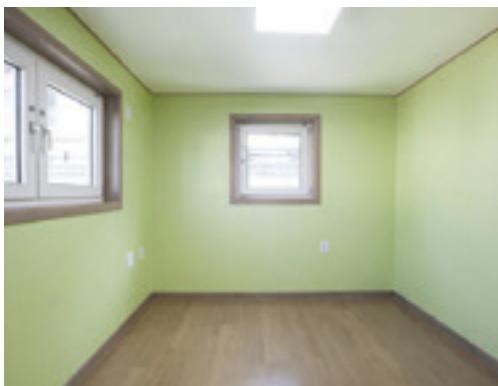


#### ▶ 데크(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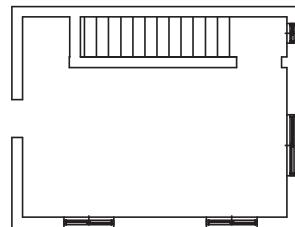
대문으로 들어서면 만나는 마당. 데크를 설치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 ▶ 데크(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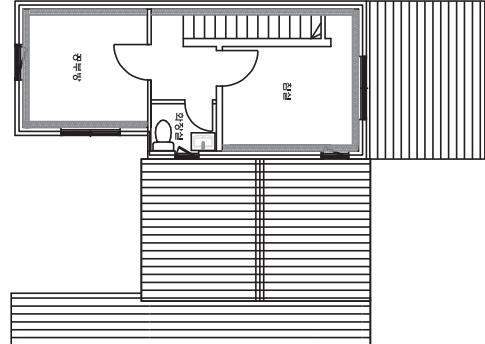
주방과 연계된 남향받이의 데크에는 야외 식탁을 두었다.  
가족들의 사적인 모임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제격이다.



〈Before〉 2층 실측도면



〈After〉 2층 리모델링 도면



#### ▲ 공부방

2층에 마련한 아이들의 공부방에는 그린 계열의  
벽지를 붙여 시야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 ▶ 2층 침실과 화장실

통으로 비어져있던 2층을 구획해 방과  
화장실까지 마련했다.





### ▶ 2층에서 바라본 동네 풍경.

70년 전 지어진 주택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보인다.

### ▼ 남향밭이의 안마당.

주방과 연계되어 사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기 좋다.



### 조적조 집에서 나무집으로 탈바꿈, 공간도 현대화

리모델링을 통해 70년 세월의 때를 벗고 새로 태어난 강은희 씨의 집은 넓은 공간감을 자랑한다. 기존 구옥은 실이 많은 겹집구조여서 실내도 답답하고 방도 작아 쓸모가 적었다. 그런 것을 넓은 거실과 햇살 가득한 주방으로 변화시켰다. 리모델링은 건축가의 구조보강 설계를 거쳤다. 시멘트벽돌을 쌓아 올려 지은 조적조 벽체 가운데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필요한 벽은 목구조로 새로 만들었다. 살아남은 조적조 벽체 안쪽에도 경량목구조와 똑같은 벽체를 세우고 단열재를 충전해 집 전체의 단열성을 높였다. 지붕과 바닥공사에도 목구조공법을 적용했다. 또한 강 씨의 구옥은 옆집과 하나의 벽을 공유하고 있었다. 공사과정에서 목구조 벽체를 새로 만들어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분쟁의 씨앗을 없앴다. 이렇게 해서 주택은 전체적으로 목구조주택이나 다름없는 성능을 갖추게 되었다. 짐이 가득 쌓여있던 마당도 쓸모 있게 살려냈다. 특히 주방과 뒷마당을 연계해 이득한 사적 마당을 조성했다. 6m도로와 접한 앞마당에도 데크를 깔아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유도했다. 집의 성능과 공간은 현대적으로 탈바꿈했지만, 모양은 옛 상태를 그대로 살렸다. 리모델링이 끝난 지금도 옆집들과 이질감 없이 나란히 어울리고 있는 이유다.

### 리모델링과 신축, 공사비 차이 없다. 그런데 왜?

대지면적 99m<sup>2</sup>. 건물면적(1층) 71.16m<sup>2</sup>. 강은희 씨의 집은 건폐율이 71.8%에 이른다. 적은 땅에서 많은 면적을 건물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법이 등장한 80년대 이전에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이 동네의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200% 이하를 적용받는다. 또한 주차장법과 이격거리, 조경공간, 대지안의 공지 조항까지 적용하면 지금처럼 1층에 거실과 주방, 안방까지 두는 게 불가능해진다. 강은희 씨가 신축보다 리모델링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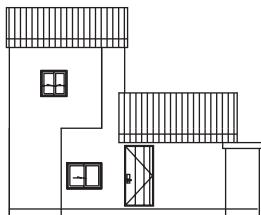
설계를 맡은 이현욱 건축가의 조언도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오래된 구옥의 경우는 신축과 리모델링의 공사비만 비교하면 유의 미한 차이가 없습니다. 리모델링은 철거비용이나 제비용이 추가 되기 때문이죠. 공사비에는 큰 차이가 없으면서 1층 바닥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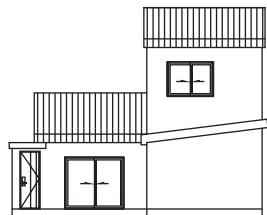
그밖에도 신축시에는 추가되는 비용들이 많아진다. 전기 인입비나 취득세도 내야 한다. 신축공사비의 2%가 세금이다. 리모델링에 비해 민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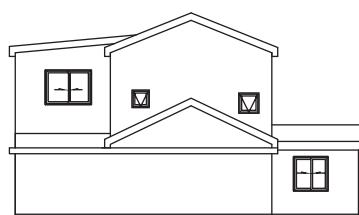
▶ 주택 뒤편은 폭이 4m에 불과한 골목길에 접해 있다.  
마당으로 들어가는 작은 나무문을 만들어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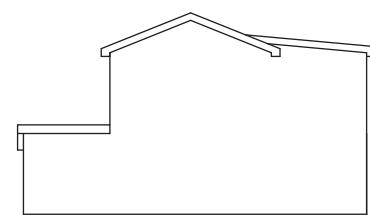
정면도



배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 리모델링 수요는 느는데 현실적인 출구가 부족하다

강 씨처럼 오래된 구옥을 고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개인이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수밖에 지금으로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주택신축 및 개량 공사비를 5000만원 까지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자 3% 가운데 1.5%는 시가 내고 1.5%는 건축주가 부담하는 형식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 주민들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지원과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고 막대한 혜택을 몰아줄 수 없는 것이 서울시 재정의 한계다.

이현욱 씨는 “아버지가 30년 전 지은 집을 상속받았는데, 헐지 않고 고쳐서 대를 이어 존치시키고 싶다고 찾아오는 젊은이들도 있다.

그런데 구옥에 맞지 않는 현실성 없는 규제 때문에 실용적으로 주택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리모델링만으로 면적증가가 어려운 구옥에서는 다락공간 신설이나 발코니확장을 양성화해서 현대생활에 맞은 새로운 공간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출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 6m 도로에 접한 대문.

기존 주택과 담의 높이를 비슷하게 설정하고  
아담한 나무문을 달았다.



## INTERVIEW

건축주 강은희 씨

# 내가 70살 노후주택을 고쳐서 사는 이유

2003년 결혼 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강은희(40) 씨.  
그녀가 70살 먹은 정통주택을 고쳐서 입주한 사연을 물었다.

### 집은 어떻게 구했나요?

결혼 전 제 명의로 친정 부모님께서 사두셨던 집이에요. 한동안 비어 두었다가 직접 살려 들어오기로 결심했죠. 이 동네는 익숙해요. 어렸을 때부터 결혼 전까지 살고 결혼 후 10년 정도 다른동네 아파트서 살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 구옥에 들어와 살기로 결심한 이유는요?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전세금도 자꾸 오르고 특히 층간 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결심하게 되었어요. 위 층에 아이 둘이 있었는데 언제 일어났는지 언제 집에 들어왔는지를 알 정도로 소음이 심했거든요. 그 엄마는 전혀 미안해 않고 그 정도도 이해 못하나며 싸우러 오곤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구옥이긴 하지만 마당 있는 단독주택에서 편히 살자 결심했죠.

### 남편이나 주변의 반대는 없었나요?

리모델링 전 상태는 절대 살 수 없었죠. 들어와서 살려면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엔 가족 모두 찬성이었고요. 다만 어느 정도 까지 리모델링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어요.

### 신축도 고려했을 것 같은데요.

신축은 너무 금액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되어 처음엔 고려대상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상한선을 잡고 주변에 알아보니 리모델링 비용도 만만치 않더군요. 처음 생각했던 금액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더라고요.

### 어려움은 없었나요?

처음 만난 시공업자에게 견적을 받고 이를 반을 공사했어요. 그러던 중 바로 옆집에서 자기네 집이 무너진다고 공사를 못하게 막았어요. 재산권은 분리되어 있지만 옆집과 벽을 공유하는 합벽 주택이거든요. 리모델링업체는 민원해결은 건축주가 해야 할 일이라며 물러서버렸어요. 옆집은 향후 2년간 물이 새게 될 경우 고쳐주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안전진단까지 받은 후 공사를 시작하라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굴렀죠. 그러다 집 근처의 건축사사무소를 찾아갔어요. 건축사는 저희가 받은 리모델링 가격으로는 원하는 품질의 집이 나올 리가 없다고 했어요. 또, 집이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 업체가 실시하는 보강만을 믿고 맡기기엔 한계가 있으니 신축도 고려해보라고 했지요.

### 신축을 다시 고민하셨네요.

리모델링 가격에 4000만원 정도만 보태면 완전 새집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기대감을 갖았죠. 하지만 두 번째 찾아간 이현욱 건축가를 만난 후 결국 리모델링을 선택했어요. 신축을 하면 땅도 줄어들고 민원에 더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땅도 지키고 민원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리모델링이 맞아요.

### 이현욱 소장을 찾아간 이유는요?

너무 낡은 집을 리모델링업체에 맡겼다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지붕을 걷어낸 집을 보니 겁나기도 했고요. 건축사라면 어차피 구조 보강은 알아서 해 줄테고, 우리 입장에서는 옆집과의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공사가 더 중요했죠. 이 소장이 시공사를 통해 해결해 준다는 약속을 받고 계약을 했어요.

### 리모델링시 요구한 사항은요?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춤지 않게 단열만 단단히 신경 써 달라고만 했어요. 먼저 살던 아파트는 베란다를 확장해서 외풍도 심하고 난방비도 많이 들었죠. 겨울엔 아예 거실에서 생활을 못했고요. 난방비 아끼려다 보니 방에서만 생활을 했었거든요. 아파트에 사는 동안 추위를 너무 많이 타는 체질이 됐어요. 결혼전에야 일반주택에 살았기 때문에 겨울에 추운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10년 정도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겨울 추위에 민감해진 것 같아요.

### 리모델링 비용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총공사는 1억500만원 들었고요. 설계비를 2000만원 냈어요. 처음 생각한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지만 그동안 공사하면서 이것저것 주워들은 것이 많아서 시공비는 적정했다고 생각됩니다. 또 아파트나 빌라 전세금보다도 훨씬 싼 금액으로 공사해서 실내공간도 넓고 마당까지 있는 집에 살고 있잖아요.

### 만족도에 점수로 준다면요?

백점만점에 백점. 공간 활용이 잘되어서 너무 좋고요, 햇빛이 밝게 들어와서도 좋고요, 나무냄새가 많이 나서 좋고요, 다 좋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네요. 아이들은 2층 공간을 매우 좋아해요. 집이 밝아서 생활하기 좋고 1층 방은 시원하고 2층 방은 따뜻해서 겨울에 2층에서 생활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1층 방이 설계보다 작게 나와서 아쉬워요. 옆집과의 마찰로 더크게 자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2층에 다락을 만들려다가 포기했는데 그게 제일 아쉬워요. 아이들이 어려서 다락을 떡이나 좋아 했을 텐데 말이죠.

## 이웃들도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이 동네는 모두 우리 집과 동일한 구조에 동일한 자재로 지어졌어요. 지금은 70년이 넘은 집들로, 이미 일부는 집장사들이 사서 빌라로 만드는 추세랍니다. 남아있는 집들은 단열이 안 되고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많이 추워요. 면적에 비해 구조도 너무 답답하고요. 다들 리모델링을 원하지만 실제 실행하는 집은 없어요. 금액적인 부담 때문에 고민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 도움 받은 제도나 지원은 없었나요?

서울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상담을 해봤는데요. 저리 대출이 최대 2000만원 정도 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고요. 더구나 리모델링 허가나 대수선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요?

오래된 집은 지금의 일률적인 제도 하에서 고치기엔 무리가 많아요. 거의 다 뜯어 고쳐야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대수선 허가는 거의 한 달이 걸려요. 만약 살던 집을 고쳐야 하는 경우라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짐을 맡기는데도 비용이 들고,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하는데도 비용이 필요하죠.

그런 점을 감안해서 30년 혹은 50년 이상 된 고택들은 허가기간을 파격적으로 줄여주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오래된 집일수록 대수선이 필요하고 대수선은 신축정도의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금액이 너무 적어요. 거의 실내의 도배나 바닥 같은 마감재만 변화를 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원이 거의 쓸모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인 규모의 저리대출이나 비용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 같아요.

## 구조진단

지은 지 수십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경우 구조변경을 원할 경우 반드시 구조진단을 거쳐야 한다.

구조변경이 아닐지라도 벽체를 보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구조진단을 할 수 있다. 구조진단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된다.

첫째는 비파괴 검사다. 벽체나 슬라브의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성질과 내부구조 등을 추정해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는 검사법이다. 둘째로, 붉은 철근 탐지기를 벽에 대고 스캐닝하여 철근량이 충분한지도 체크한다. LCD계 기판의 화면으로 보강철근의 선명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슬라브비파괴검사



벽체비파괴검사



벽체스캐닝



슬라브스캐닝

## 리모델링 공사과정

### 1. 구조보강

철거 전 붕괴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구조를 지탱하는 철재 파이프를 설치한 후 철거에 들어간다.



### 2. 철거

구조진단이 끝나고 설계를 마치면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

제거해도 되는 벽체는 미리 표시하는 등 도면에 따라 철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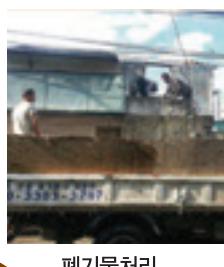
철거하기



자붕철거



벽철거



폐기물처리

### 3. 목구조 신설 및 보강공사

철거한 후 새롭게 만드는 공간은 서양식 경량목구조 공법을 적용했다. 남아 있는 벽체 안쪽에 나무 벽을 덧댔다. 새로 만드는 실내의 칸막이 벽도 경량목구조 공법으로 제작했다. 경량목구조 벽체는 규격목재로 구조를 만들고 목재 사이에 글라스울(단열재)을 채우기 때문에 단열에 유리하다. 1층과 2층 사이의 바닥도 털어내고 새로 보강해서 목조주택이나 다름없는 성능을 갖추게 된다. 지붕도 새로 보강한다.



목구조 벽 만들기 ► 단열재시공 ► 목구조 벽 시공 ► 목구조 지붕 시공 ► 목구조 벽체 시공/OSB합판 붙이기/방습지 붙이기

### 4. 설비, 전기공사

구조체가 완성되면 각종 설비공사와 전기공사를 진행한다.

### 5. 내장, 외장(스타코)공사

집 외피에는 스티로폼 단열재를 씌워서 이중단열 효과를 노린다.

단열재 사이는 충전재로 빈틈없이 마감한다.

최종 마감재는 관리하기 좋은 스타코를 선택했다.



외단열 실시 ► 스타코작업1 ► 스타코작업2

### 6. 방바닥 미장공사

방바닥 전체에 몰탈을 시공하고 보일러 배관을 설치한다.



공정별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얼마나 들었나 (단위: 원)

공정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가설공사	1,972,600	2,897,200		4,869,800
철거공사	3,364,500	3,421,000	3,950,000	10,735,500
경목골구조공사 샷	13,522,000	12,575,000	250,000	26,347,000
시공사	5,700,000	1,700,000		7,400,000
내장공사	5,613,500	1,882,000		7,495,500
타일공사	2,882,000	750,000		3,632,000
전기설비공사	6,950,000	3,680,000		10,630,000
미장,방수공사	1,896,000	644,000		2,540,000
외장공사	4,602,500	2,445,000		7,047,500
수장공사	2,058,000	1,362,000		3,420,000
가구공사	2,450,000			2,450,000
합계	51,011,100	31,356,200	4,200,000	86,567,300

### 7. 화장실공사

1층과 2층의 화장실 공사도 진행한다.

누수방지에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

### 8. 실내도배공사

실내는 전체적으로 벽지로 마감했다.

### 9. 실내바닥공사

1층과 2층 바닥에 강화마루를 시공했다.

### 10. 싱크대공사

\* 위 금액은 시공사이윤, 일반관리비 등을 제외한 공정별 비용임.

### 11. 부대토목공사

### 12. 데크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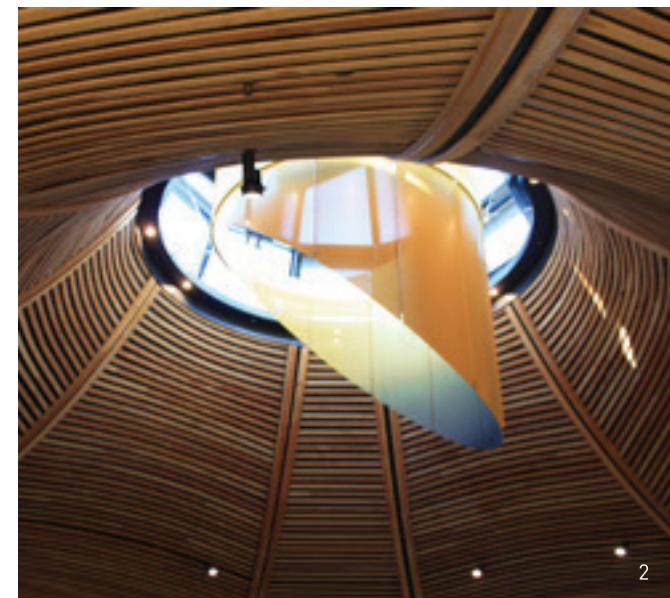
1

## 목조건축 기술연수 참가 후기

# 목(木)의 긍지를 품어오다

김종상 (2013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본상 수상)

우리나라는 목조기술에 있어 5000년의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조상의 얼을 새겨온 목조건축물들이 20세기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반영하듯 철골·콘크리트 구조물로 빠르게 채워졌고, 급기야 고유의 전통 건축물들을 침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웰빙’이라는 흐름은 건축문화에 친환경건축이라는 언어로 반영되었다. 이는 목조건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건축가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은 목조건축이 다시금 삶의 인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현재의 우리에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그 미래의 가능성성을 고민하고 들여다보았고, ‘캐나다 목조건축 기술연수’에 참가하게 되었다.



2

가슴 벅찬 울림을 안은 채,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의 우월한 기회를 얻은 우리는 한국을 떠나 세계적 삼림국가인 캐나다로 낯선 첫걸음을 내디뎠다. 도착하여 우리는 단순한 관광의 의미가 아니었다. 퀸 엘리자베스파크와 스탠리파크의 광활한 삼림이 인간에게 주는 신선한 느낌과 우아한 영향력을 잠깐이지만 느낄 수 있었고, 전통 그자체인 게스타운에서는 삶에 스며든 목조건축과 그 공간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간의 호흡을 보았다.

본격적인 강연이 시작되었다. 다양한 목조건축물의 실례들을 보며 각 건물의 용도와 공간의 특징, 무엇보다 사용된 목재의 특성과 디자인을 중점으로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극한 되어 있는 목조디자인에 비해 자유로운 활용과 쓰임에 놀라웠고, 단적인 미가 아닌 구조시스템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계산속에 꽂을 피운 미학이었다. 차음과 내화 등 목재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구성을 하고 계획적 용도에 맞추어 다양하게 변화하는 구조체가 주는 공간은 독특한 그 자체였다. 유익한 정보가 가득한 이론 강의가 끝난 후 이어지는 현장방문은 이론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그 유익함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도면과 사진으로만 보았던 구조체를 직접보고 충별로 그 진행과정을 볼 수 있어 이해를 더욱 도왔다. 또한, 밴쿠버지역의 벤두센가든, 올림픽 오벌 경기장, 써리 시티센추럴 등 작은 부재에서부터 글루렘, 패럴렘, 대형 각재로 이루어진 목구조의 정점을 보여준 목조 건축물들의 공간 속에 있는 동안, 공간이 주는 감동과 함께 하나라도 마음속에 더 담아가려 눈과 귀는 분주하기까지 했다. 특히 위슬러에 위치한 오스트리아 패시브하우스는 고 단열, 고 기밀, 고 성능창호, 열교환기, 열교없는 디테일로 구성돼 있는데, 에너지 절감을 강조하는 친환경 주택이라는 점이 목구조와 상생하며, 절묘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3

선배님들의 매 강연, 현장마다 보여주시는 뜨거운 열기는 GAUNIN 시공사의 시험용 막 사에서 이루어지는 시공 과학에 절정이었다. 학생인 나로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온정어린 마음으로 챙겨주시며 대답을 해주시는 선배님들의 따듯함이 지식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도 넘치셨다. 다음날 UBC에 있는 위치한 FP 이노베이션에서 Jieying Wang 박사를 만났다. 그녀는 목조건축의 내구성고려사항에 대한 강의부터 중층 고층에 대한 적용 그리고 목조건축 경향까지 폭넓은 강의로 올바른 목재사용과 지속적인 목조 건축을 위한 해답을 보여주었고, 연구실에서 목재를 이용한 다양한 한실험들을 통해 눈으로 확인 시켜주었다. 연수에 마지막을 장식한 Super E 강연은 각국의 적용된 사례를 실례로 다양한 장점들을 알 수 있었고, 기술적 디테일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여러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목구조체 사이의 기밀 시공 기술 등 현장에 방문하여 어떤 과정을 통해 적용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1. Surrey Central City
2. Vandusen Visitor Center
1. Richmond Olympic Oval
2. UBC Forest Science Building

사실 캐나다 목조건축 기술연수에 참가하기 전까지만 해도 목재, 목구조, 목조건축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얇은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이는 목조건축에 대한 사고를 함에 있어 자신에게 스스로한계와 제약을 주었던 것 같다. 이 막연함을 안고 온 이국땅에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일정이 끝날 때 즐 깨달았다. 목조건축의 가능성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펼쳐보았던 우리에게, 경연의 부상으로 기술연수가 가져다주는 효과가 무엇인지 말이다. 10일의 시간 동안 매 순간 목재가 곁에 존재하는 환경 속에서, 목재에 대해 끊임없는 실험과 노력 그리고 도전을 통해 일구어낸 실천들을 듣고 보았다. 목구조란, 단순한 기술의 집결이 아닌 목조건축의 본질이었다. 선배님들은 연구, 설계, 시공 등 다양한 분야에 위치해 계시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보여주시는 열정과 땀이 모여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번 여정을 통해 목조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돌아간다. 목구조에 대해 스스로감아 놓았던 사슬을 끊을 수 있었고, 앞으로 나와 목조건축이 상생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좋은 계기였다.

마지막으로 매시간 쉴 틈도 없이 열성적으로 앞장서시며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시려는 마음과 도움을 받기만 한 정 소장님, 김 이사님, 황 전 무님과 일정 중에는 우리들의 대장으로서 일정 후에는 건축 대선배님으로서 좋은 말씀, 좋은 생각 나누어주신 조남호 소장님, 박진호 교수님께 이 글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설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온 이곳에서 ‘木’의 대한 근원적인 따뜻함과 소박함을 지닌 궁지를 가득 품고 돌아왔다.



4

#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 8월 ~ 11월 활동사항

### 8월 14일

#### 경희대학교 경골목구조 워크샵 특강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정태욱 대표는 경희대학교 경골목구조 워크샵에 참가하는 건축학과 20명에게 '건축자재로서의 목재 특성' 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워크샵에 참여한 경희대 건축학과 학생들은 경골 목구조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익히고 파빌리온 디자인 및 실시설계에서부터 1:1실물 제작을 통한 시공 실습까지 경험하며 수료한 학생에게는 3학점이 주어진다. 올해 워크샵은 8월 11일부터 팀별 디자인 작업을 시작하여 8월 14일 이론교육과 디자인 선정,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파빌리온 시공 실습을 하였으며 파빌리온은 경기도문화의전당 앞 광장에 기증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된다.



경희대 건축학과 학생들에게 강의 중인 정태욱 대표



수료증을 들고 기념촬영 중인 WBI 15기 수료생들

### 8월 16일

#### 우드유니버시티 WBI (목조공동주택 설계-시공-감리 전문과정) 15기 수료식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와 (사)한국목조건축협회가 후원하는 우드유니버시티의 'WBI-목조공동주택 설계, 시공, 감리 전문가과정' 15기가 8월 16일 마지막 강의에 이어 수료식을 가졌다. WBI과정은 4월 5일 개강하여 8월 16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국내외 목조건축관련 법규 및 기준에 준하여 경골목구조를 포함한 목조 건축의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였다. 특히 우드유니버시티의 교육 이수자는 캐나다우드가 주최하는 캐나다 현지 목조건축 기술연수에 참가할 수 있는 특전과 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완성된 플레이하우스 앞에서 학생들의 기념촬영

### 9월 25일 ~ 28일

#### 2014 부산경향하우징페어 참가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2014 부산경향하우징페어에 참가하여 목조건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에서 발행한 목조건축 기술서적을 무료 배포하고 건축 자재로 많이 사용되는 캐나다산 목재에 대해 홍보하며, 페어 기간 중에 '2014

부산 우드 페스티벌'과 부산건축가회 회원을 대상으로 목조건축 설계-구조 워크샵을 개최하였고 부산 및 경남지역의 건축가를 초청하여 부산 조선호텔에서 우드월 간담회도 진행하였다.



종국의 우드월 사례를 경청하고 있는 간담회 참석자들

### 9월 26일

#### 부산 목조건축 설계-구조 워크샵 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부산건축가회와 공동으로 부산 및 경남지역의 건축사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캐나다우드에서 개발한 목조건축 설계 디자인-툴 (Architectural Design Tool)인 목조건축 표준 상세 CAD 파일 CD를 활용한 목조건축 설계이론과 목조건축 구조 디자인 - 툴 (Structural Design Tool)인 WoodWorks Design Office Software를 활용한 목조건축 구조 이론을 소개하는 목조건축 설계-구조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워크샵 참가자에게는 목조건축 표준상세 CAD파일 CD 및 캐나다 우드 기술 책자 등을 배포하였다.



매년 늘고 있는 부산 목조건축 설계-구조 워크샵 참가자들

### 10월 4일

#### 우드유니버시티 WDO(목조건축 구조설계 이론 및 Software 실무과정)-13기 개강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가 후원하는 목조건축 전문가양성 교육기관 우드유니버

시티의 WDO (목조건축 구조설계 이론 및 Software 실무과정) 13기가 10월 4일 개강하였다. 우드유니버시티의 WDO과정은 목조건축 구조설계 전문 과정으로 교육생은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의 지원으로 목조건축 구조를 검토 및 설계 할 수 있는 Software 'WoodWorks Design Office' 교육용 버전을 무료로 제공받아 프로그램 사용법과 실습을 통해 목조건축 구조설계에 대한 전문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교육생은 매년 2월에 진행하는 캐나다우드 주최 '캐나다 목조건축 기술 연수'에 참여할 수 있다.



우드유니버시티 WDO (목조건축 구조설계 이론과정) 교재

## 10월 17일 ~ 18일

**브리티시컬럼비아 산림토지천연자원부  
스티브 톰슨(Steve Thomson) 장관 방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산림토지천연자원부 스티브 톰슨 (Steve Thomson) 장관과 팀 셸던(Tim Sheldan)차관, 캐나다 연방 천연자원부 글렌 메이슨 (Glenn Mason) 차관보, 캐나다우드 폴 뉴먼(Paul Newman) 회장 외 캐나다 정부 관계자분들이 10월 17일에 방한 하였다.

방한 기간 중 경기도시공사가 조성중인 가평 달전 '북한강동연재' 내 커뮤니티센터 (Maple Hall) 준공식을 기념하여 방문하였고 '2014 친환경 건축 우드월 세미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으며, 세미나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자들과 대담의 시간을 가졌다.



우드월 세미나에서 축사 중인 스티브 톰슨 장관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정태욱 대표, BC특별대사 벤 스튜어트, BC주 산림토지천연자원부 스티브 톰슨 장관, 캐나다 연방 천연자원부 글렌 메이슨 차관보 (왼쪽부터)

## 10월 18일

### 북한강동연재 커뮤니티센터 "Maple Hall" 개관식

경기도시공사가 국내 최초로 민간참여 공동개발사업방식으로 드림사이트 코리아와 조성중인 경기도 가평군 달전리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인 141세대 단독주택 및 듀플렉스(땅콩집)로 계획된 전원주택 단지인 북한강동연재에서 커뮤니티센터 개관식이 BC주 천연자원부 스티브 톰슨 장관을 비롯한 캐나다와 한국의 귀빈을 모시고 개최되었다. 커뮤니티센터는 알버타주의 구조용 규격재 기증과 캐나다우드의 기술지원을 상징하기 위해 "Maple Hall"로 명명되었다.



북한강동연재 Maple Hall 개관식 테이프 커팅 중인 캐나다와 국내 귀빈들

## 10월 18일

### 친환경 건축 "우드월(Wood Wall)" 세미나 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정부 한국대표부는 공동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에 부합하는 친환경 재료이자 단소저장 고인 목재를 소개하고 주거용 및 상업용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우드월(Wood Wall)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특히 세미나 강연 전에 캐나다 연방 천연자원부 글렌 메이슨 (Glenn Mason) 차관보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산림국토천연자원부 스티브 톰슨 (Steve Thomson)장관이 축사를 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세미나는 송재승 소장(미추건축사사무소)이 우드월이 무엇인지 소개를 하고 SH공사의 친환경 우드월 아파트 설계한 조남호 소장(솔토지번건축사사무소)이 프로젝트를 소개 하였으며, 이광훈 대표(드림사이트 코리아)가 경기도시공사의 북한강동연재 커뮤니티센터에 적용한 우드월을 소개하였다.



우드월 세미나에서 경청 중인 캐나다 BC주 장관 외 캐나다 참석자들

## 10월 20일 ~ 23일

### 캐나다임산물연구소

#### 지엥 왕(Jieing Wang) 박사 방한

캐나다임산물연구소(FPIInnovations)의 지엥 왕(Jieing Wang) 박사는 진주에 설치된 캐나다 방부목 옥외 시험장 실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다.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캐나다표준(CSA)에 따라 방부 처리된 캐나다 침엽수 수종의 한국기후-환경조건에 대한 성능시험을 2010년부터 지엥 왕 박사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나종범 교수와 함께 진주에서 진행해 오고 있다. 왕 박사는 FPIInnovations의 내구성과 건물 외피 그룹의 선임 연구원으로, 매년 한국을 방문하여 방부목 시험장 실사와 목조건축물의 내구성 향상, 우드월 등에 대한 강의와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캐나다 방부목 시험장에서 목재 상태를 점검 중인 나종범 교수와 지엥 왕 박사

## 10월 29일 ~ 11월 1일

### 2014 한국건축산업대전 참가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주최로 COEX에서 열리는 '2014 한국건축산업대전'에 참가하여 캐나다우드 한국

사무소 부스를 방문하는 건축사 및 건축 관련 전문가에게 목조건축에 대한 기술 정보와 캐나다산 구조재를 소개하고 다양한 기술자료를 전달하였다. 특히 한국건축 산업대전 기간 중 코엑스 세미나실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주최로 진행되는 건축사 실무교육에 참여하여 캐나다우드 한국 사무소에서 제작한 '목조건축 표준 상세 CAD파일 CD' 와 목조건축 관련 기술 책자 를 참가자에게 배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캐나다우드 부스에서 기술 책자를 받고 있는 건축사들

## 10월 30일 ~ 31일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실무교육 강의**  
10월 30일과 31일 진행된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실무교육에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의 주관으로 우드유니버시티 송재승 원장이 '목조건축 설계도면의 특징 및 해설'라는 주제로 목조주택 표준 상세를 소개하는 강의를 하였다. 건축사 실무교육은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건축사의 필수 교육으로 2014 한국건축산업대전 기간 중에 코엑스에서 2일간 진행되었다. 특히 강의를 들은 200여명의 건축사들은 캐나다우드 발행 목조건축 표준 상세 CAD도면 CD와 목조건축 관련 기술 서적을 배포 받아 목조 건축 설계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송재승 원장의 강의를 듣고 있는 건축사들

## 11월 15일 ~ 23일

**북한강동연재 "Canadian Village" 가을 주택전람회 개최**  
북한강동연재는 신규 샘플하우스와 커뮤니티센터인 "Maple Hall"의 개관에 맞추어 분양을 위한 가을 주택전람회와 부대행사

를 개최하였다.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Maple Hall에 전시 부스를 운영하여 캐나다의 임산업, 목재제품, 목조건축과 목재와 목조건축의 장점을 방문객에게 홍보하였으며, 방문객에게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발행 목조건축 기술서적을 무료로 배포하였다. 또한 전시 부스에서 캐나다 산림과 목조건축의 장점을 알리는 홍보 영상물을 상영하여 방문객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Maple Hall에서 분양 설명을 듣고 있는 관람객들

##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12월 ~ 3월 활동계획

### 12월 4일

####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시상식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에서 후원하는 2014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수상자가 최종 발표되어 '2014 목재산업박람회' 기간 중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계획부문 대상 1명과 본상 수상 3명에게는 캐나다우드에서 주최하는 '캐나다 목조건축 기술연수' 참가비를 부상으로 받게 되며,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2006년부터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에 후원을 해 오고 있다.

### 1월 23일

#### 캐나다 Super E와 고효율 친환경 목조건축 세미나 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와 한국목재공학회는 1월 24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4 하우징브랜드페어와 연계하여 "캐나다 Super E와 고효율 친환경 목조건축"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Super E는 캐나다 연방정부에 의해 개발되었고, 첨단 건축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친환경성과 건강성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업그레이드 되어왔다.

## 2월 4일 ~ 14일

#### 제10회 캐나다 목조건축 기술연수 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설계, 시공, 개발, 유통 및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캐나다 목조건축 기술연수를 개최한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본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 목조건축의 설계, 시공, 자재 유통 분야를 선도하는 분들이 참가하여 왔으며, 국내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규모와 용도의 목조건축물과 시공 현장, 연구소, 제재소 등의 견학, 전문가에 의한 혁신적 목재의 이용, 저에너지 주택, 빌딩 사이언스, 품질 관리, 감리 등에 대한 강의로 진행된다.

## 2월 14일

#### 우드유니버시티 WDO(목조건축 구조설계 이론 및 Software 실무과정)-13기 수료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에서 후원하는 우드 유니버시티의 WDO(목조건축 구조설계 이론 및 Software 실무과정)-13기의 종강 및 수료식이 2월 14일 양재동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10월 4일 개강하여 5개월간 진행된 WDO과정 13기 수료생들은 교육에서 배운 목조건축 구조를 검토 및 설계 할 수 있는 Software 'WoodWorks Design Office'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2월 28일

#### 그린빌딩 세미나 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2014 경향하우징 페어 기간 중 '그린빌딩 세미나'를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홈페이지 가입 회원에게 무료로 주던 캐나다우드 발행 기술서적들은 앞으로 캐나다우드 주최 세미나, 워크샵 또는 박람회의 캐나다우드 부스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그린빌딩 세미나 참가자에게도 기술서적을 배포한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구 매현로 54-1, 3층  
T: 02-3445-3835 F: 02-3445-3832  
[www.canadawood.or.kr](http://www.canadawood.or.kr)